

민주 탈당파 뭉쳐 '새로운미래'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 '새로운미래'로 공동 창당 당명 등 갈등 있었으나 막판 봉합...선호도로 결정 이준석·금태섭 창당대회 총출동... 빅텐트 속도 주목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4일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한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신당의 당명은 당원과 지지자들 공모 등의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 미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통합정당의 당명을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으나 당원 및 지지자 공모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미래'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책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며,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제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그의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당의 상징색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를 담은 '프러시안 블루'와 새색,

나무, 뿌리 등 생명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라이트 그린'으로 정했다.

당헌은 헌법 및 정당법에 기초해 총 9장 92조로 구성했으며 ▲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개혁주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 민주 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 비전 등의 6개 원칙을 확정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까지 경북·부산·광주·전북·경기·충북·강원·인천·서울 등 총 9개 시도 창당을 완료했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측은 전날까지만 해도 당명 등을 두고 갈등을 드러냈으나 막판 봉합한 것으로 보인다. 박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결혼식 전날까지 신랑신부 모두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면서 "특별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나 미래대연합의 현직 의원 세분은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당화라든지 패권적 당 리더십 등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민주당을 떠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의견 차이나 견해가 있는 것은 아주 미세하다"고 덧붙였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공동창당으로 제3지대에 또 하나의 중테트가 마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면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의 공동창당이 오늘로써 완성된 것이고, 지금은 각자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인지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거제 당론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일단 (별립형 회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치개혁, 선거개혁 등 국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을 후퇴시키는 결정을 이 대표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도 나누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통합 빅텐트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각자 창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께 그 당이 어떤 지향점, 가치를 갖는지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당이 굳건하게 설 때 통합도 빅텐트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빅텐트가 필요하고, 양당 정치에 실패하고 등 돌린 여론층이 두텁기 때문에 그런 기

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목표엔 차이가 없다"며 "빅텐트 필요성, 가부에 대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새로운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회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가 축하할 예정

이어서 제3지대 빅텐트 논의 향배가 주목된다. 김희면기자

여수시의회, 정책 토론회 개최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지난 1월 30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해양보호지역 관리와 현행 이용을 통한 글로컬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규 의장, 백인숙, 문갑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남도자연생태연구소가 주관하였으며 전문가 및 시민단체, 시의원, 시정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전문가 3명의 발제와 지정 토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경원 남도자연생태연구소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정의와 가치, 지정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며 최근 관광 트렌드인 '자연기반 관광'을 강조했다. 습지보호구역 및 람사르 사이트 지정, 자연기반 보호지역 통합 관리, 지속 가능한 어업 프로그램 실천, 글로컬 해양생태 관광 도시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한 태지문커 세계연안포럼 조정그룹 조정자는 세계연안포럼의 존재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한 연안을 만들기 위해 여수시와

협력을 제안했다.

박선영 남도네이처 대표이사는 여수시의 해양 글로컬 방안으로 보호지역 지정 확대, 해양기후-웰빙 TF 설치 등이 필요하며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지속가능성', '상생과 협력'이라는 큰 틀에 의견을 함께 했다.

정재호 여수시 수산관광국장은 수산과 관광분야를 연계한 지속가능 도시 건설에 힘쓰고 있으며, 갯벌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전제조건인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주무부서들과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홍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의 과제로 상생기반 강화와 생태계 질적 관리 제고를 꼽으며 주민불편 최소화, 보호구역 인접 생태마을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 보전계획 수립 및 이행현황 관리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민주 "윤, '녹화 대담' 뒤 숨어도 '김건희 게이트' 못비껴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갈 물린 방송 앞세워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 "소통방식 결코 민주주의 아냐...사과 없인 심판 직면"

KBS 신년 대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관철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신년 기자회견을 거부했다"며 "'녹화 대담' 뒤에 숨어도 김건희 게이트를 비껴갈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4일 KBS와 대담을 진행하고, KBS는 사흘 뒤인 오는 7일 녹화 방송을 방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취임 3년 차 국정 운영 구상을 소개하면서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등에 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수석대변인은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재갈 물린

방송'을 앞세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며 '용산 전체주의'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민심인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인지 이미 답은 나와 있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성년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만약 정부 여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